

11월, 갈등.

그 고독함에 대하여...



- #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 # 다일 식구를 소개합니다 3탄
- # 중간평가 활동보고
- # 제 3회 캠프공유회

***번외
시아누쿠빌 여행기, 익숙함 마인드 맵, Diary, 씨엠립 지도 1탄, 사진전

#1.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어느 덧 캄보디아에서의 3개월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처음 한달은 두근 거리는 설렘으로, 두 번 째달은 아낌 없이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으며 정신없이... 그리고 이번 달은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그 익숙함으로 보내다보니 울기도 웃기도하며 갖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다.

아빠들의 다양한 활동 속사정들을 풀어보까나!

김재학 단원의 이야기.

밥퍼

9월 한 달 간 캄보디아에 적응하며 매일매일 했던 밥퍼. 처음의 그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무언가 마음이 쩡한... 하지만 느낄 새도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후후. 10월부터는 우기로 인해 출근도 늦어지고, 다른 활동으로 인해 많은 참여를 못했고 어느덧 11월이다.

물론 지금도 매일매일 모든 시간을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이젠 일이 익숙해져서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해야 하나? 빈 곳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서 하고 있고 작당하면 또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익숙해 진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보게 된다.

그래도 밥퍼는 정말 힘들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 활동이기에 일을 마치고 나면 녹초가 된다. 휴.. 잠깐의 시간만 있으면 저절로 눈이 감기는... (경험해본 사람들은 공감하려나???)체력의 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체력이 왕창 좋지 않은 나로서는 나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다ㅠㅠ

또 밥퍼에는 많은 방문자, 봉사자들이 온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많다. 과연 봉사를 하러 온 것인지, 관광을 하러 온 것인지. 가끔씩 그들이 아이들을 동물원의 동물 보듯이 할 때는 화가 많이 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숨기고 그들을 맞이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지만 물론 봉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밥퍼가 과연 옳은 활동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무조건적인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닌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먹지 못하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도 잡을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인생이니 나에게겐 참 어려운 고민이다. 아!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오해는 하지 말기를.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에서는 여러 활동들을 한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들. 교육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배원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계속 되는 고민..... 그래도.... 난 오늘도 행복하게 밥을 푼다!!!!

살리아미

시작은 참 힘들었다. 흐미흐미...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처음에는 학생이 없었다. 다른 반들은 수업을 진행할 때는 못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내가 맡은 멜로디언 반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도 했었다. 그래도 센터 주변 아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다른 봉사자분께서 도와주셔서 현재 8명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시간대가 맞지 않아 나는 세반으로 나뉘어 일주일에 6번을 수업하고 있다. 같은 오후반을 다니던 아이 중 한명이 갑자기 오전반으로 바뀌는 바람에;;; 수업이 많아질 수록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 부족해져서 몸은 지치지만 그래도 소수의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가르치는 것이 수월해서 마음은 편하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게임, 박자, 악보를 볼 줄 몰라서 한국을 마무리 짓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게임을 알고 금방 금방 곡을 마무리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낀다. 예체능 교육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멜로디언을 가르치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지만(?) 나도 실력이 부족하고 잘 몰라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또 현지 노래로 수업을 하고 싶지만 현지 동요도 모르고 악보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

우리 반은 크리스마스 때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연주회 때 아이들이 신나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중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장선생님과 의 만남 후 내가 맡은 반 친구들이 7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섰다. 내가 한국에서 가르쳐본 학생 수는 많아야 고작 7명이었기에, 약 70명이나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통제 가능할까? 이런저런 걱정들..

그리고 수업 첫날!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의 등장에 호기심을 가져서일까? 대체로 어수선하지 않았고 말도 잘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국어에 흥미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으로 나뉘지기 시작하고, 어디에나 있는 까불까불 거리는 학생들 그리고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역시 우리 아미 2명이 수업에 함께 들어가도 하나하나 케어해 주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또 내가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선생님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가르치는 스킬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점이 부족하기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힘든 상황이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 게임을 통한 학습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게임을 하고 상품을 걸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쏟아져 나온다! 눈빛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수업을 하고 내용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먹히지 않을까?? T T

중간 중간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면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아미가 참 이뻐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한 대 쥐어박고 싶다.... (애들아.. 미안...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자부심은 자꾸 생긴다.. 이것도 병인가??? 더 열심히! 모두가 흥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게!!!

유치원

10월부터 시작된 유치원. 수업이 9시부터 시작이라 우기 때 출근이 힘들어서 수업에 참여를 잘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금은 꾸준히 잘 참여하고 있어서 좋다. 매주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 회의하면서 한국 아이들이었으면 이런 것쯤은 쉽게 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어쨌든 수업을 하러 아니 같이 놀러 유치원에 가면 정말 웃음이 나온다! 아이들이 무작정 나에게 달려든다! 이러니 안 이뻐할 수가 있나!!!

나를 반겨주는 해맑은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같이 엄지만 맞춰도 좋아하며, 하이파이브를 해도 좋아하는 사랑스런 순수한 아이들. 무엇인가 더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같이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내 능력이나 한계가 많아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 또 몇몇 아이들이 더 이뻐보이는 것도 미안하다. 나도 사람인잖아... ㅎㅎ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주고, 조금만 더 안아준다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사라질까??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이 많은 유치원.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활동인 유치원!! 애들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한글학교

하.. 한...글 학교. 매주 토요일 마다 주말을 반납하는 활동. 자원활동가에게 주말이 어디있겠냐만은... T T T T 현지 교민 아이들, 그래도 대화가 가능한 아이들. 하지만.. 그래서 말을 더 안듣는 아이들... T T T T 부모님들이 다들 바쁘셔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서로 자기가 먼저 관심 받고 싶어하며 사랑받길 원하는. 그래서 전문적인 스킬이 없는 나로서 어쩔 줄 모르겠다... T T T T

사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제일 많이 느끼는 활동이다. 수학은 과외 경험도 있고 해서 가르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좀 힘들다. 주입식 교육은 싫은데 내가 배워 온 것이 그런가 내가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여기 아이들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가르치는데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 어떤 아이는 구구단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떤 아이는

완벽하게 해서 어떤 문제를 풀면 잘하는 친구가 다 풀게 되는...

혹시 이르감이 있지만 7기(벌써... 하...)가 이 글을 본다면 수업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길...;;(겁먹진 마세요. 막상 닥치면 하게 되요!!)

그렇다고 한글학교가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다. 아이들이 가르쳐 준대로 할 때의 부딪힘, 타지에서 한인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향수병을 없앴다고 해야하나? 흐흐 남은 시간도!! 으리차차!!!

도서관

우리 팀이 반을 나누지 않고 함께 하는 유일한 활동. (밥퍼 빵퍼 제외) 매주 매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우리 팀 좀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하하 나만 그런가?? 뭐 그냥 그렇다고 하하하.

수원 Y에서 배웠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서관 프로그램은 어려운게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역해온 2개의 책을 가지고 읽어주기도 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나무를 만들기도 했고 물고기 도장을 찍어 큰 물고기도 만들기도 했으며, 같이 도서관에서 뛰어 놀기도 했고, 영상도 봤다. 아이들이 거리낌없이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같이 재밌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번역의 어려움, 캄보디아 출판의 미약, 어린 아이들은 아직 글을 모르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면에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한발짝 더 움직여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책 보급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 후원 받아온 책들을 번역해 도서관에 못오는 수상가옥 아이들에게 빌려주는 사업. 잘 진행해서 아이들이 도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정연 단원의 이야기.

밥퍼 & 빵퍼

좋은 점: 매일 참여하는 활동이기에 힘들지만 애착이 가는 활동이다. 이제 제법 익숙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미 기존 스텝들끼리 맞춰져 있는 호흡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다. 분담형식이 아니고 손이 모자란 곳에 유동적으로 움직여가며 일을 해야해서 일이 손에 익지 않은 처음 한 달은 눈치도 많이 보고 많이도 허둥지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텝들에게 가장 고맙다. 밥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동안 혹은 주말동안의 인부를 묻거나 서로 장난 치며 내가 자연스럽게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스텝들에게 말야. 아마 스텝들의 배려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많이 헤매고 다녔을 것이다.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로 나와 피곤해보이면 먼저 다가와 왜 오늘은 말이 없냐고, 피곤하냐고 먼저 물어봐주는 어쩌면 사소하지만 나에게 큰 활력소가 되는 그들의 정에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아쉬운 점: 밥퍼는 단 시간에 쉴틈없이,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에너지 소모가 빨리 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오거나 일손이 모자랄 때에는 급 체력이 저하된다.ㅠㅠ 특히나 체력면에서 빨리 지치는 편인 나는 밥퍼를 마무리 하고 나면 몸이 흐물흐물해짐을 느낀다.ㅠㅠ 그렇게 되면 또 기복을 타게된다. 팬실히 짜증이나고 두쪽 다 올라가지 않는 내 입꼬리를 느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이들에게도, 스텝들에게도 뭔가 축초된 심신이 진심을 야금야금 잡아먹는 기분이 들어 속상하다. TT 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 힘내자~!

살리아띠

좋은 점: 소수의 아이들을 누구보다 가깝게 대할 수 있어서 좋다. 교외활동 중에 중학교, 유치원 수업 등은 한명, 두명의 아띠가 30명에서 많게는 60명이 넘는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해서 개개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리아띠에서는 같이 하는 친구들과 서로 이름 한번 더 불러볼 수 있고, 눈 한번 더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다. 가끔 남자아이들의 장난에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지만ㅋㅋㅋ내가 맡은 리코더 수업은 운지법이나 소리는 법 등 1:1로 상대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 즐겁고 재미있다.

아쉬운 점: 리코더에 경우 아이들이 도에서 높은 도까지 소리내기를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시간에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 흥미를 급 잃어버려 다음 시간에 살리아미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도울 수 있는 데 까지 같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TT 그 친구에게 미안하기도하고 자책도 들어서 그때마다 싱송송했던 것 같다. 더 노력해야겠다~!!

도서관프로그램

좋은 점: 매주 수요일 2시 30분, 도서관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다. 이제는 제법 아이들에게 인지가 되었는지 곧잘 시간 맞춰 찾아오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아이들과 우리만의 약속이 생긴거구나~!' 라는 생각에 보람되기도 하고 책임감도 생긴다. 우리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의 완성작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협동 활동을 할 때마다 아이들과의 친밀함과 결속이 하나하나 더 늘어 나는 것 같아 매 시간 유쾌한 기분이 든다. 제일 바쁜 수요일 마지막 스케줄이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는 뿌듯함에 힘을 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쉬운 점: 역시나 언어적인 면이 가장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서관프로그램이 전부 동화책에 국한되서 이뤄져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될수 있으면 동화책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번역 등의 활동에서 힘든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현지스텝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외국에서의 도서관프로그램은 우리의 노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확실히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유치원

좋은 점: 나는 유치원 수업을 할 때가 가장 신이 난다. 그 시간만큼은 나도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 같이 엄지손가락을 마주하는 것 만으로도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새 같이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나는 다만 놀아주는 것 밖에 없는데TT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받는 것 같아 미안하고 또 고맙다. 또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부족한 우리들이 한결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또한 너무 감사드린다.

아쉬운 점: 담당 반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쉽다. 유치원 수업이 즐거운 나로서는 다른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픈 욕심이 요즘 부쩍 든다. 너무 커워워><!

중학교

좋은 점: 역시나 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어느 사춘기의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잘 놀고, 웃기도 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때의 '나'를 떠올려보게 한다. 한창 멋 부리기 좋아 할 시기, 거울 앞에 모여서 흐트러진 머리카락 매무새를 가다듬는 아이들을 보면 학생주임 선생님께 혼나면서도 사수했던 내 긴생머리가 생각이 난다. 이렇듯 아이들은 가장 반짝반짝했던 내 사춘기 시절을 기억하게한다. 고마워~애들아^^

아쉬운 점: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한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터~! 가끔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친구들이 있어 힘들다TT, TT 분위기를 어떻게 다 잡아야 할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다. 아이들이 한글을 부담없이 받아 들었으면 하기 때문에 진짜학교수업처럼 딱딱한 수업은 절대 결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흑흑흑ㅋㅋㅋㅋ

정말 중학교 수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활동인 것 같다.

한글학교

좋은 점: 캄보디아 내의 한인사회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 깊다. 한글학교 수업이 없었더라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필연적으로 갖게되는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을 한인 아이들을 모르고 지나 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글학교의 아이들을 보면서 캄보디



아 내에 있는 한인사회의 또 다른 면을 매주 마주하게 된다.

아쉬운 점: 국어 읽기 책의 답을 영어로 써도 되냐고 묻는 아이, 수업도중에 벌떡 일어나 물 마시러 가는 아이, 선생님 말은 죽어라 안듣는 창개구리 같은 아이. 한글학교에는 정말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해 본 적이 없고 단체생활 속에서 생기는 규칙에 대한 인식도 없기 때문에 종종 어이없는 에피소드들이 생기곤 한다. 이럴 때 마다 통제불능~!! 111일주일에 한번 오는 한글학교는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인식보다는 오랜만에 말이 통하는 또래 한국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가 고평까...라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 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한다.

한주민 단원의 이야기.

밥퍼

밥퍼는 캄보디아 라온아피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매일 하고 있는 활동이다. 음식준비부터 배식, 뒷정리까지 한시도 쉴 틈이 없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밥퍼의 모든 부분을 하다보니 이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알아서 척척 하고 있다.

라온아피 활동 중 가장 체력소모가 큰 활동이기에 밥퍼가 끝나면 피곤함이 밀려올 때가 많다. 체력을 유지해 가며 활동에 임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서 고민이다. 그렇지만 항상 함께하는 밥퍼 스태프들과 더 친밀해졌고, 유익하게 수많은 마을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이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행복하다.

빵퍼

처음 다일공동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신기했던 것이 빵퍼였다. 반죽에서부터 포장까지. 제빵의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또 할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처음 9월은 교우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밥퍼 후 빵퍼에 가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10월에 들어선 후 쌀리아피, 중학교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빵퍼로 가는 발걸음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아침시간에도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밥퍼에서 필요로 하는 손길이 더 많아진 것도 한 요인이다. (상대적으로 빵퍼스텝이 더 많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빵퍼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빵퍼 스태프들과 나이드 비슷하고 빵을 만들면서 대화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크메르어 실력도 늘어나게 되었다.

중학교

중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의 한 부분인 “한국어” 과목으로 아이들과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책임감이 주어지는 활동이다. 10년간의 물난리로 집들이 물에 잠기고 이동수단에 문제가 생겨 중학교 수업을 초반에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 70여명의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을 보며 자난날의 대한민국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고 이 교실 안에서 캄보디아 미래의 주역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든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자주 만나는 아이들은 라온아피를 선생님 보다 한국에서 온 사람, 언니, 오빠로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밥퍼에서 만나는 관계라 어쩔수 없기에 고민이다. 또한 중학교 수업야다보니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에 필요성을 느낀다. 한국어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면 매번 올 다음 가수도 비슷비슷한 수준과 내용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매번 비슷한 교육을 받게 흥미도 떨어질 것 같다. 선생님이로 대우하지 않는부분도 마찬가지로야.



도서관

도서관 프로그램을 한지 두달째에 접어들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어 이제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는 날이면 아이들이 먼저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맨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 모으기에 정신없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다. 처음 출석나무 만들기로 아이들의 사진이 도서관에 부착되어 도서관에 가면 자신의 사진을 볼수있다는 점도 아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연계시켜 내용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책이 단지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프놈끄라움에 사는 아이들의 연령은 다양하지만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유치~초등생이 많아서 그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고학년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한글학교

한글학교에 가면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진다.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아이들, 토요일에 가는 학교임에도 한국아이들과 함께, 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매주 오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무엇인지 궁금해 지기도 한다.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 진도는 절반도 나가기 힘들다.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많고 환경도 갖추어져서 아이들이 이 교과서로 재미있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나도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항상 수업을 마칠때마다 더 재미있게 가르쳐주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유치원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다니자보니 초,중학교 쉬는시간이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수업 함께 듣는다. 교구나 학습자료를 사용한 수업일때에는 중학생 아이도 흥미를 보이며 함께하고 싶어 한다. 그런 모습을 볼때면 초, 중학생 아이들과도 함께하면 좋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든다. 춤추고 노래만 해도 즐거워 하는 아이들, 선생님의 손길을 한번이라도 더 받고싶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은 어느나라든지 다 똑같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수업 할 때 아이들이 유치원 창문으로 수업을 듣거나 쳐다보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 아이들이 간혹 교실 안으로 들어와도 선생님도 제재하지 않아서 왜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다. 그런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아이들도 수업을, 교육을 받고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선생님도 알기에 그렇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직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살라아피

살라아피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각기 다른반을 맡고 있기에 가장 책임감이 큰 프로그램이다. 한글 초급반을 맡고 있어서 처음 모집할 때 인원수가 가장 많았다.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정원이 가득 차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를 받았었다. 그러나 바쁜 집안일로 인해 수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장난식으로 신청한 아이들이 많아서 수업 중반부로 넘어갈 때 학생을 정리하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주로 어린아이들과 만나게되는데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16~17세 아이들이다. 살라아피를 통해 큰 아이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 깊은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되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수 있었다. 그러자보니 아이들에게 꿈과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싶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있을때면 집근처에 놀러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환경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려고 한다. 수업 후반부에 들어서자 지금, 한글수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에 그 아이들이 들어 온 것처럼 그 아이들 마음속에도 매번 바깥은 라온아피의 한 단원이 아닌, 친구같은 선생님이로 남았으면 좋겠다.

조성대 단원의 이야기.

밥퍼

밥퍼를 하면 일단 힘이 든다. 특히 남자이기에 힘 쓰는 일을 더 하게 된다. 밥퍼는 매우 뜻 깊은 활동이고, 아이들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많은 감동이 있다. 하지만 나도 무죄로보트가 아닌 사람이기에 매주 수~목요일쯤 되면 온몸이 수시고 지치게 된다. 그러면 가끔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도 있다. 또한 어느정도 밥퍼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게 되자 누가 피를 부리며 농땡이를 치는지 파악이 되기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가 된다. 어쨌든 나 스스로는 멋있게 하자!!

빵퍼

사실 빵퍼는 초반에 열심히 가고는 10월부터는 많이 가지 못했다. 오전에는 밥퍼를 하고 오후에는 각종 교유헌동 및 다 른 할일을 하다보면 남는 시간에 빵퍼에 가기보다는 쉬고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야하는데..... 미안합니다 빵퍼 스텝 여러분...

유치원

유치원 수업은 이곳에 오기 전에 잘 할 수 있을지 가장 걱정했던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유익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아이들이 내 몸에 3~5명이 들러붙어 매달리고, 때리고, 막대기 같은 걸로 쏘셔도 예쁘기만 하다. 한국 꼬마들은 내 장난에 잘 울었는데 이 꼬마아아들은 악바리 근성이 있어서 내가 한 번 꿀밤을 먹이면 날 10대는 때리고 돌아간다.

유치원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유치원 선생님과 의 소통이다. 사실 우리가 준비해가는 수업들이 담당 선생님과 의 피드백이 없기에 단순히 우리끼리의 만족일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한 선생님과 의 소통이 없으니 수업준비에 있어서도 아이 들의 성향이나 선호를 잘 파악할 수 없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생각이 아닌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중학교

가장 골치가 아프면서도 기대가 되는 활동이다. 일단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것도 경 험이나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부담이 많았다. 매번 수업 대본과 나눠줄 프린트를 만들어 복사를 맡기고 찾는 것이 만만찮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잘 모아서 파일에 들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다.

중학교수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내가 정식(공식적인) 선생님이 아님에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아닌 정규 수업에 편성되어 반강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아이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인식하는지 아 니면 곧 있으면 한국으로 갈 한국에서 온 봉사자 정도로만 인식하는자는 아직 확신이 없다.

어쨌든 나는 스스로 선생님이라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렇게 행동하기에 수업시간에 싸 운 두 녀석에게는 체벌에 가까운 꿀밤을 먹이며 교실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교무실에 내 자리가 있었으면 그 녀석들을 벌도 세웠을 텐데..

결국 중학교 수업은 스스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따라 수업을 준비하고, 진 행하며 아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다. 결국 이게 어렵다.

한글학교

나는 유일하게 기초반(7살)과 초5 수학반 2개를 맡고 있다. 기초반 아이들은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잘 하도록 금화모양의 초콜렛으로 훈련 시켜왔다. 떠들고 난리를 치더라도 '너 초콜렛 안준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 열심히 한글을 읽는다.



하지만 초5 아이들은 나에게 시련을 준다. 일단 출석부터 전체 6명 중 평균 2명(고정멤버) 정도이며 그 친구들도 공부를 하러 오기보다는 친구를 만나러 온다는 느낌이 강한 아이들이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면 다른 얘기를 꺼내고, 빨리 끝내달라고 노래를 부르기에 나도 그에 충실히 반응하며 다른 얘기로 시간을 떼우고, 빨리 끝내 준다. 이것이 문제점인 것 같다.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30점이 나와 내심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지만 다음시간부터는 아예 수학 시간 전에 도망을 가버린다. 휴...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은 진행하면서 딱히 어려운 점은 없다. 그나마 아쉬운 점은 프로젝트 빔을 쏠 공간이 미땅창은 것과 햇빛이 많이 들어와 영상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이용한 설명이 아이들을 집중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도서관의 내부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과 전 아띠들이 도서관을 꾸며놓은 것들이 많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비치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이 아쉽다. (다들 High Quality라 떼기도 뭐함..)

기타

- 1) 당료에 걸릴 것 같다. - 아나라 음식은 대부분 달고 짜다. 맛있긴 한데 건강이...
- 2) 자전거의 부품이 하나씩 사라진다. - 자전거의 Pride였던 앞의 등과 뒤에 빨간불빛이 나는 김박이가 사라짐.
- 3) 우리숙소 츠카에(개) 끼끼와 페니가 사랑에 빠져서 매일 아침 5~6시에 저를 깨웁니다... 게다가 새로운 꼬운 츠카에(새끼개)들이 매일 깡깡대서 매일 새벽 1~2시까지 저를 못 자게 합니다.
- 4) 보고서의 압박
- 5) 아버지가 조직한 봉사팀의 방문(12/5~12/8)을 대비한 준비..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함ㅎㅎ

김원영 단원의 이야기.

밥퍼 & 빵퍼

생각보다 나의 적성에 맞는 활동이다. 조리과정이나 배식 시간은 매우 단순한 작업이지만 정신없이 바쁘고 끝나 체력을 요구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하다보면 내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몸은 고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없이 행복해지는 일이다. 음식을 만들 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더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겠다 싶어 힘들어도 마음을 고쳐먹게 된다. 또 현지스텝들과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고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농담따먹기 가벼운 장난에 웃게되는 경우가 많다. 모두들 서로에게 으쌰으쌰 힘을 분통아가며 일을 해나가고 있다. 아 좋은 점을 하나더 추가하자면 조리하는 중간중간 음식을 주워먹는 재미가 있다. 물론 배식에 자장을 주면 인될만큼만 먹어야 한다. 계란말이 찌꺼기들, 내 사랑 빨구어 쪼가리...

살리아띠

미술반 넉그루 원영으로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활동 중 하나이다. 흐흐흐. 아이들과 미술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친해질 수 있어 좋다. 또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아이를 보면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의 자질 부족인지 배우고 싶어하고 흥미를 갖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단순 흥미만으로 아이들을 모두 시켜줄 수는 없고 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는 아이들에게만 살리아띠 미술반의 자격을 주고 있다. 엄격한 넉그루!!!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연말에는 아이들 미술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기대된다^^

유치원

유치원 아이들은 정말 키요마들, 아미 활동의 활력소들이다! 좀 통제가 안되고 말을 안 듣긴 해도 천사같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만 보고 있으면 다 용서가 된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다가 이해시키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교육적인 면으로 직접 다가가기 어렵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매번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온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좀더 교육 연구가 필요한 활동 중 하나야.

중학교

최고 학년인 9학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 아이들 역시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한국어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배우고 싶어하는 과목은 아닐 터. 따라서 흥미없는 아이들이 억지로 교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딴짓을 하기도 한다. 이를 통제하는 것이 힘들다. 중학교 수업만 하고 오면 하도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아픈곤 한다. 역시 교사의 자질 부족??? 하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서 질문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 가사를 발음 나는 대로 적어와 물어보기도 해 날 감동시키기도 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한국 아이돌 가수 노래를 가르쳐 주는 시간은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수업이었다.

도서관 프로그램

한국에서도 만발의 기대를 하고 왔던 프로그램 중 하나야. 어려운 점은 예상한 비와 같이 한국어가 아닌 캄보디아어로 번역한 뒤 아이들에게 전달해주어야 하는 점이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미술, 음악, 신체활동들을 결합할 수 있어 말보다 몸짓과 눈빛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색다른 교육활동이다.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빛을 발하는지 이제는 매주 수요일 프로그램 시작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먼저 기다리기도 한다. 좀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활동들을 생각해봐야겠다.



#2. 개성넘치는 다일식구를 소개합니다 3탄

- 캄보디아 씨엠립 다일 NGO 자원봉사자 편 -



김계숙 선생님

다일 천사클리닉을 3년째 책임지고 계시는 다일공동체의 나이팅게일입니다. 해원협 단원으로 캄보디아에 처음 오셨을때는 자신도 이렇게 오래 거주할 줄 몰랐다고 하신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신지 벌써 2년째 되셨고 센터에서 가장 한국말을 잘하는 파리로 계속셈 제자라는 사실!!! 이곳이 나를 필요로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캄보디아를 떠날 수 없다는 선생님, 앞으로도 프놈프라움의 나이팅게일로 오래오래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정 선생님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목소리로 다일공동체를 활기차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다. 밥퍼를 올리는 외침-[식판~~ 큰른!!(빨리빨리)]은 아미들과 스텝들의 손놀림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 원활한 식판공급의 기폭제가 되어준다. 댄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며 마을을 올리는 원투쓰리포~ 가 시작되면 댄스교실 창문은 구경하는 아이들로 가득하다. 현란한 춤솜씨는 보는 아이들의 눈까지 즐겁게 만들고 선생님의 기술을 전수받은 학생들의 몸동작도 엿짜!(최고) 승엽샘과 함께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자전거 클럽의 부회장이며 언제나 센터의 활력을 주는 활력소이다.

이승엽 선생님

항상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승엽샘은 KOICA 단원으로 올 8월에 캄보디아에 오셨다. 이곳 사람들의 가장 중요 수단인 배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진에 알갭전이 있어 다일의 모든 사진과 영상은 승엽샘 손에서 탄생된다. 승엽샘의 한컷은 곧 작품! 때문에 선생님이 사진가를 들고있으면 아미들은 한컷을 찍기위해 기회를 엿본다ㅋㅋ

조성태 단원을 반하게 만든 자전거를 소유하고 계시며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자전거 클럽의 회장이다.



이명진 선생님

김재학 단원을 능가하는 짝짝 빠른 장신의 소유자! 이명진 선생님은 프놈프라옴의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중학교 수업까지 개설되어 몸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다. 아미들에게 각종 굶것질거리를 소개해 주시며 최근에는 한국의 재첩과 비슷한 양념조개에 푹 빠지셨다. 센터 내에서는 명덕샘과 더불어 빵퍼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 새로운 빵 개발에 여념이 없다. 고 귀마방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빵이 등장할지 기대된다.



유동식 군

5개월간 자원봉사로 온 학생이다. 아미들과 더불어 비슷한 연령대로 라운 아미 8기를 희망하고 있다. ㅋㅋ 기타연주에 소질이 있어 센터 스텝과 청년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기타와 함께하고 있다. 오피스에 올리는 기타연주는 사람들의 키를 즐겁게 해 주며 몇몇사람에게 기타를 배워야 겠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 옆머리를 시원하게 민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캄보디아에 윤도현머리를 선보여 마을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3. 아니 벌써 두달 반이?

- 캄보디아팀 중간평가 활동 보고 -

중간평가에 대한 메일을 받았을 때 ‘벌써’ 라는 느낌부터 들었다. 되돌아보니 두달반이 도가고 있었다. 시간 참 빠르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어 발표”.. 헉.. 두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영간사님께 “발표 영어로 하나요????”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캠팀은 한국어로 해도 됩니다!!” 하하하하 하하!!! 마음의 짐을 한시름 내려놓았다. 하하

원장님께서 저번 가수 중간평가 때는 깐깐하게(?) 평가를 하셨다 해서 우리는 나름 긴장하며 준비를 했다. 그래도 그 전부터 미리미리 해 놓아서 그리 어렵진 않았다. 다 만든 후 팀원들끼리 시간을 재며 발표 연습도 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의 정리, 영상만들기 등등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참 많은 일을 했구나’ 뿌듯함도 느꼈다.

캄보디아에는 남부원 사무총장님, 홍상표 간사님, 박소영 간사님이 오셨다. 사실 사무총장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좀 졸았던(?) 것은 사실이다. 왠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건 걱정에 불과했다. 함께 자낸 3일 내내 편하게 대해 주셔서 우리도 긴장을 풀고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다.

간사님들과 함께 밥퍼활동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짧은 시간이나마 체험해 본 후 드디어 중간 보고 시간이 왔다. 순서는 야했다. 지금까지 활동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활동들을 보고 한 후, 각 활동별로 소개 및 활동내용,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또 빈곤퇴치 캠페인 보고를 하며 우리가 캠페인 기간에 만들었던 활동영상을 시청했고 다시 나머지 활동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각자 느낀점을 이야기 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받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캄보디아팀은 전가수부터 지속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부족하다는 피드백도 들었다. 사실 이런 점은 우리도 피드백 시간을 통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냥 뭐... 핑계를 대치면... 자급의 일도.. 힘이 너무.. 든다..... 뭐.. 그냥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1월에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미션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도 다른 팀처럼 큰 프로젝트에 대해 스스로 계획하고 지역조사도 하며 기존에 있던 활동이 아닌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 것 같다. 기대가 된다. 또 우리가 했던 무빙스쿨 인 캄보디아에 대해 이야기 하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로컬NGO도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중간보고 시간을 마치고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장소들을 본 후 저녁식사, 사내 구경, 숙소에서 간사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센터 근처에 있는 톤네샵 호수에 가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함께 보며 지역상황에 대해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보고서에 쓴 먹거리를 함께 먹으며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았고, 앙코르 왓트를 함께 방문하여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숙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중간평가 일정은 끝이 났다.

중간평가를 통해 각자 처음 올 때 마음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고 좀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뜻 깊었던 시간이었다.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메일을 통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자 했으니... 패스!!! 남은 2개월 반.. 아니 이제 2개월..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잘 살다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고맙습니다!!!!



◀ KB국민은행-다일 어린이 도서관 앞에서

▼ 다함께 앙코르왓트에서!!!



PS. 3일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짐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가시던 그날 공항에서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는지... ㅎㅎㅎ 농담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덧 익숙해져버린 일상에 자신을 다시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밥 또한 너무 감사드리구요^^ 두달 뒤에 한국에서 뵈어요. 그간 건강 조심하시구요 저희도 몸 건강히 잘 자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번외. 시아누쿠빌에 다녀왔어염.

캄보디아에서는 우기가 끝날 무렵, 물의 흐름이 정지하는 11월 보름에는 물축제를 연다. 저희 팀은 이 기간을 맞아하여 캄보디아의 최고의 휴양지~! 시아누쿠빌에 다녀왔습니다. 시아누쿠빌은 캄보디아 남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시아누쿠빌 또는 콤포송으로 불립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시엠립에서 버스로 12시간 남짓 걸리는 시아누쿠빌은 우리나라의 동해정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피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희의 이동수단은 기대 반, 걱정 반 나이트버스~! 처음 타 본다는 기대와 장장 12시간을 거의 누운 채로 자야한다는 걱정으로 우리 팀은 저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시간을 견디는 최고의 방법~! 바로 잠을 자는 것!!! 전날 다들 피로를 일부러 쌓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ㅋㅋ)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시아누쿠빌로 출발!!

덜컥거리는 버스에 거의 쪼그려 누운 상태로 몸을 실은지 약 12시간, 드디어 우리와 시아누쿠빌의 이른 아침이 마주한 순간입니다. 이른 아침의 선선한 날씨와 공기 덕분에인지 잠이 싹 달아나는 기분이었습나^^

어렵게 구한 게스트 하우스(축제 기간이라 방도 없었고 비싸기 까지 했습니다ㅠㅠ)에 어서어서 짐을 풀고 본격적인 시아누쿠빌 즐기기에 돌입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굶다 굶해~! ㅋㅋ

고심 끝에 섬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고, 스노클링에 점심으로는 생선구이까지 제공되는 밤부섬 패키지로 결정~!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뜬내삼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지만 역시나 바다는 바다~! 탁 트인 시야와 투명한 바닷물에 햇빛이 부서져 반짝거리는 그 풍경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조용하고 한가로운 풍경을 가진 밤부섬에서 산책도 하고 톱툰이 물놀이도 즐기고^^ 잠시 소나기가 쏟아지는 바람에 배를 피하며 커피 한잔과 함께 한숨 돌리고^^ 즐거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점심으로 나온 버터에 구워나온 생선과 바게트, 샐러드~!도 굶굿~ 다 같이 그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ㅋㅋㅋ멋진 풍경 속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먹으니 단연 꿀맛!

섬으로 빠져나오는 중간지점에서의 스노클링도 제법 신났습니다. 바닷속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TT 발이 닿이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조끼에만 의존한.....그 스릴넘치는TTT 수영을 못하는 저는..... 공포였 다죠ㅋㅋㅋ 한국가면 다 같이 수영 공부시다ㅋㅋ

재미있게 놀다보니 벌써 저녁먹을 시간~?! 숙소 근처의 맛집을 추천받아 포식 아닌 포식을 하고 소화도 시킬겸 나선 시아누쿠빌의 밤바다에서 폭죽놀이도 하며 길었던 시아누쿠빌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튿날은 몸이 피곤했던지TTT 다들 점심때까지 늦잠을ㅋㅋㅋ하지만 밥은 절대 거를 수 없는 우리 캄보디아팀!!! 일어나자마자 점심먹으러 출발~! 검색해온 유명한 씨푸드레스토랑으로 고고고! 역시나 너무 맛있어 짹~!!!다들 그날의 게요리는 잊지 못할 거라며.... 시엠립에서 비슷한 요리하는 곳을 꼭 찾아 낼 거라며 ㅋㅋ같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날은 비교적 한가롭고 여유롭게 시아누쿠빌을 여행했습니다. 아기자기한 북 카페에 들러보기도 하고 기념품가게도 둘러보고~! 이렇게 짧았지만 강렬했던? 한편으로는 여유롭기도 했던 우리의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또 다른 여름 날의 추억을 공유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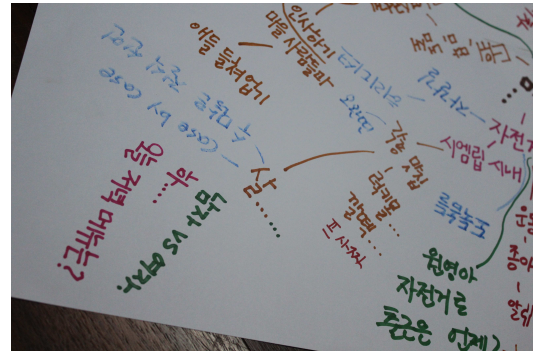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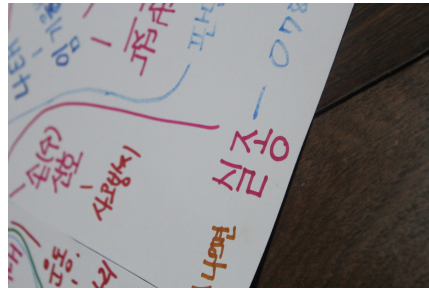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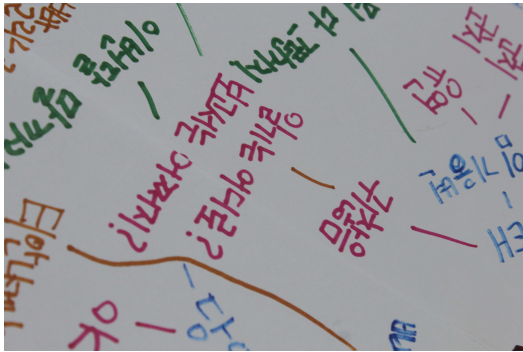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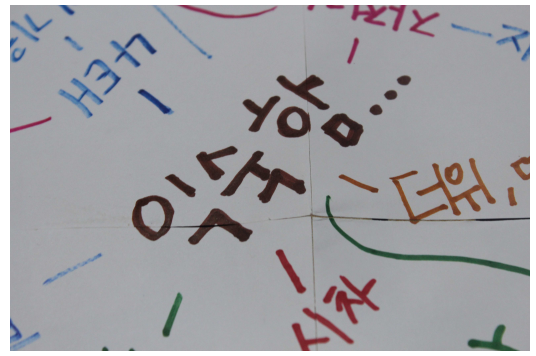


여기까지 함께여서 즐겁고 더욱 뜨거웠던 시아누쿠빌 여행이야기였습니다. ♥

#번외2. 익숙함...

캄보디아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만 같은 요즘. 그 익숙함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매우 진지했으나 그 끝은... 하지만 결코 장난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게 캄보디아가 된 것 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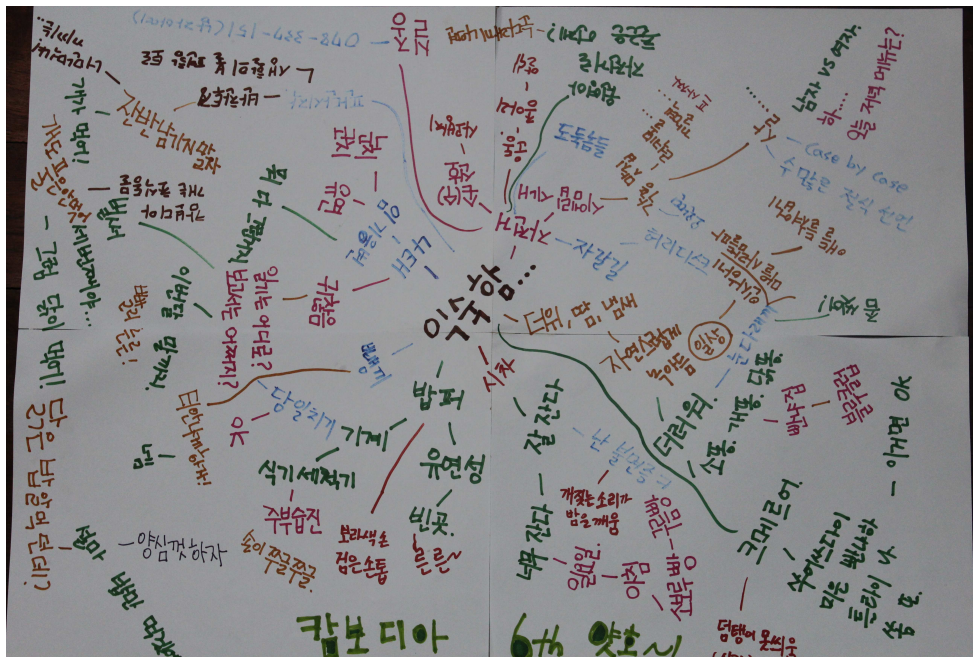


잉? 실종...? 비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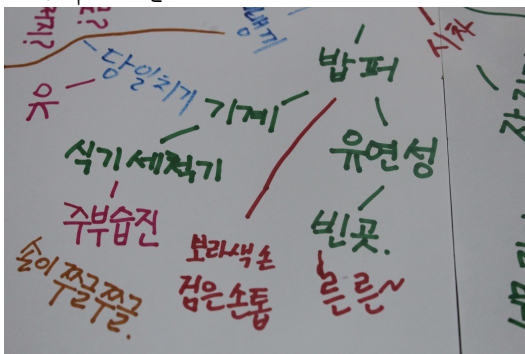
끝날만 하면 또 시작되는 보고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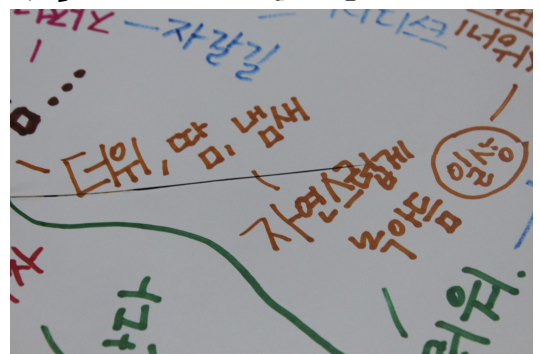
↘ 캄보디아 살이 초개의 고민! 살..



식판닦이의 달인! 르르르르르르(빨리빨리~)



담념새는 이미 향수처럼... 맨?(잔짜?)



#4. 제 3회 캄캄 공유회

- 감추어진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 영화 '킬링필드'를 보다 -

*킬링필드란 - '죽음의 뜰'이란 의미의 킬링필드(Killing Field)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 때, 크메르군에 의해 수천명이 학살되어 매장된 곳이다.

1975년 4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약화된 캄보디아의 친미 론놀정권을 몰아낸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포트가 '농민천국'을 건설한다며 1979년 1월 베트남군이 프놈펜을 함락할 때까지 4년간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자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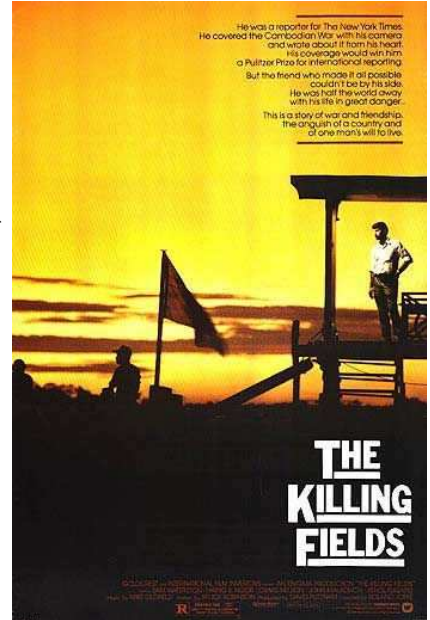
당시 폴포트가 정권을 잡자 론놀정권의 부패에 영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은 환영하였다. 그러나 폴포트는 새로운 '농민천국'을 구현한다며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이주 시키고, 화폐와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론놀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정치인, 군인은 물론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아까지 무려 전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만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 정권은 1979년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 공산동맹군에 의해 전복되었다.

이는 캄보디아 뉴욕타임스 특파원 시드니 쉐버그의 글, '디스프란의 생과 사(한 캄보디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글은 1980.1.20 뉴욕타임스에 실렸고 쉐버그는 이것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하였다. 이 글은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킬링 필드'의 토대이기도 하다.

한편, 2003년 6월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은 과거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대한 재판을 하기로 합의하고 집단학살 관련자 처벌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재학이 말하다

라온아피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캄보디아에 대해 알아보면서 알게 되었던 킬링필드. 마침 그 시점에 킬링필드를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신문기사에 나와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다.

캄보디아에 와서 조금씩 느끼는 사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또 안경을 쓴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던 내가 참 한심스럽다.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주인공 위주로 진행된 것이라 그 당시 상황이 자세히 들어나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나오는 것에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영화를 본 후 생각을 나누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분노도 일어났다.

시범립에도 킬링필드 사건을 추모하는 탐이 있다고 해서 팀원들과 함께 가서 추모도 드리면서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념에 따라 정권이 바뀌고 그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들. 그 이념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길래 국

만들의 생명까지 뺏으면서까지 이뤘어야 했다. 그 때의 청년들은 이 나라의 중심인 40대가 되었고 따라서 그 문제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배우는 현재의 학생들이 계몽하여 캄보디아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주민이 말한다

양코르와트, 툰레삽 호수와 더불어 생각나는 것은 해골로 가득한 이미지. 킬링필드야.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 중 하나이며, 현재 캄보디아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캄보디아를 알기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건이기에 영화를 상영하고 시엠립에 있는 킬링필드의 흔적, 왓트마이에 방문했다. 작은 킬링필드라 불리는 왓트마이, 그들을 위한 사원.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그 당시의 분위기와 잔인함을 느낄 수 있었고 폴포트 정권의 악행들을 보며 한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양코르와트를 거닐면서, 다시한번 크메르인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식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캄보디아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다. 아직도 세뇌교육을 받은 이들이 존재하기에 불안정하지만,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캄보디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믿는다.

정연이 말한다_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만나다.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것. 양코르와트, 툰레삽, 수상가옥, 킬링필드.....

그 중 캄보디아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 킬링필드. 캄보디아에 오기 전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 어떤 나라이고, 어떠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는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캄보디아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또 3개월 가량을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스케줄에 익숙해져 어찌면 캄보디아 자체를 이해하려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점을 반성하고자 이번에 팀원들과 킬링필드에 관련된 영화도 함께 보고 시엠립에 있는 킬링필드 왓트마이라는 사찰도 방문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일단 영화를 보면서 어떠한 빛나간 사상이 한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웠다. 영화내용이 인물 중심의 스토리여서 아쉽긴했지만 스크린으로 뚜렷히 묘사된 킬링필드 희생자들의 아픔과 비극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영화 보는 내내 가슴 졸이며 긴장을 놓지 못한 것 같다. 영화관람이 시각적으로 묘사된 모습에 의



한 잔상이 뇌리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면 이어진 왓트마이 전학은 그 때의 처참함이 피부로 와닿는 경험이었다. 유골탑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있었던 것 같다. 무고한 희생자들의 절규와 자국민들을 처참하게 학살한 폴 포트 정권의 잔악스러움이 한데 섞여 무거운 공기를 낳고 있었다. 아직도 이들은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그들의 눈망울 속에는 슬픈 역사가 어려있다. 역사의 그늘 아래 숨죽여야 했던 그들에게 오늘도 달지 않을 위로 보내본다.

성태가 말한다

킬링필드 영화를 보고, 또 씨엠립에 있는 킬링필드 유적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옳다 야한 것을 떠나 국민의 지도자,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하나로 파생되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자 지금까지 봐온 많은 독재자들 히틀러, 후세인, 김정일, 카다피, 그리고 킬링필드 사건을 일으킨 폴포트 등을 보면서 이들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몇 십년 동안 비참하고 고달픈 삶, 슬픔을 안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족이 그 당시 캄보디아에 있었다면 분명 숙청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킬링필드와 태국, 베트남과 수 많은 전쟁을 치른 캄보디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 일본과 계속된 전쟁속에 있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차이로 6.25라는 아픔을 간직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그 아픔을 잘 견뎌내고 다시 앙코르와트를 건설하던 찬란했던 시절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원영이 말한다

나에게 있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가 있는 유명한 관광지일 뿐이었다. 이 거대한 앙코르와트라는 찬란한 유산 뒤에 숨겨진 가슴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역사나 정치 등에 문외한 나는 영화를 보고나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킬링필드의 충격적인 영상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다. 자식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 야한 사상을 세뇌당한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인터넷을 통해 킬링필드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보고나니 더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접 캄보디아 씨엠립의 킬링필드인 와트마이 사원의 위령탑을 보고나니 더 실감이 났다. 아직도 킬링필드에서는 해골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사원을 둘러보며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았다. 만약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캄보디아는 어땠을까? 우리가 활동하는 프놈끄라움 마을은 또 어땠을까? 이런 상상까지... 마을 사람들의 사람 좋은 웃는 얼굴 뒤에 이런 슬픈 진실이 감춰져 있었으니...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며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번외3. Diary.

재학이의 일기 -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수요일 정말 바쁜 날이다.

9시에 유치원 오전반 수업, 10시엔 중학교 수업, 11시엔 바로 쌀라아띠 끝나면 바로 밥퍼 마무리 활동, 잠깐 점심 식사 후 다시 1시에 다시 유치원 오후반 수업...

그리고 2시 반 도서관 프로그램... 아 쉴 시간이 없다.

더군다는 오늘은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을 내가 맡았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번역해 온 동화책을 가지고 진행했다. 읽어주고 내용으로부터 유도된 다른 활동도 하고 어찌어찌 잘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나는 저절로 눈이 감기고 헤드뱅잉은 기본이고 나는 녹초가.....

아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열정을 다할 수 있어서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너무 급 마무리인가???)

성래의 일기 -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요즘 자전거에 완전 중독되어버렸다. 거금 100불을 투자해서 마련한 나의 애마는 전면에 등도 달려있(있)고(누군가가 훔쳐갔지만ㅜㅜ..), 후면에는 빨간 깜빡이 불도 켤 수 있(있)다.(이것도...) 그리고 쇼바가 엄청 좋은 산악용 자전거여서 울퉁불퉁한 길에서 더욱 신가를 발휘한다. 이 나라는 남의 것을 잘 훔쳐가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고(훔쳐가는 나쁜 놈들도 있네요..) 들었지만 난 자전거를 그냥 밖에 세워두고는 잠도 오지 않아 자물쇠까지 사서 꼭꼭 채우고 다니고 있다.

우리 팀 모두 자전거가 있지만 유독 나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기본적인 출퇴근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이동에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된 계기는 수해 때 차가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게 된 것이 시작으로 그때부터 이제 거의 한달 반 가까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날 이후로 기름을 쓰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은 거의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 것 같다. 이런저런 차비, 기름값 같은걸 계산해 보면(물론 내가 내는 건 아니지만..) 자전거를 구입한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자발적 불편함, 건강을 위해서 또는 무언가 빠센 것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비싼 자

전거에 대한 본전 찾기, 칼 퇴근 가능, 걷는 걸 싫어함, 빠른 이동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차를 타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이다.

매일 십 수번 마주치는 사람들의 웃음, 'Hello',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일상들 삶을 조금은 더 관찰할 수 있다. 몇날 며칠 물고기를 잡던 집이 엄청 많은 물고기들을 햇빛에 말리는 풍경, 물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엄마한테 잡혀서 회초리를 맞은 아이, 어느날은 길에서 물에 휩쓸려온 쓰레기를 단채로 줌고 불에 태우는 학교 학생들, 5시 즈음이면 학교가 끝나 거리로 몰려나오는 학생들 등등.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는 것이 요즘 나의 가장 큰 낙인 것 같다. 덕분에 살도 10kg 가까이 빠진 것 같고 농농 체력도 좋아진 것 같다. 아마 내가 한국을 가기 전까진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닐 것 같다.

주민이의 일기 - 2011년 11월 3일 목요일

오늘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센터 일과가 끝난 후 센터 앞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점 앞으로 가서 쪼를 만났다. 한참을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쪼의 엄마가 나에게 요구르트 얼린 것(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안되냐고 묻는 것이다.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같이 나눠먹자고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쪼 엄마가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사주고 싶은데 먹을래? 라는 뜻이었다.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아오이(주다)의 주체를 “나”로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적어서 여유가 없다는 그 고정관념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을, 그런 편견을 버리자고 항상 생각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편견대로 해석한 내 모습을 보니 정말 부끄러웠다. 아이와 잘 놀아주고 잘해주는 모습을 본 엄마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줄수만 있다고 생각했었을까? 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만 준다고 생각했었을까?

많은 것에 대한 생각이 드는 11월, 이 일은 나를 다시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또한 그게 물질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많이 받고 있고 그들도 주고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생각해주는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꼈다.

정연이의 일기 - 2011년 11월 23일 아제 그만 흡입할 때가 되었나 보다.

2달동안 너무 달렸나보다. 뭐가 동글동글해지고 있다. 한숨이 늘고 있다.

그래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만 알수 있을 정도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공감하고 알아본다. 흑흑 뭐가 문제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살 찌우는 것일까? 운동량이 절대 부족했던 한국에서 보다 움직임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은데.....그렇다면 역시나 흡입이 문제?? 이곳 음식들이 대체로 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긴 하지만.....그래서 찌는 것이라면 왜 오빠들은 살이 쪽쪽 빠지고 있을까? 부럽게.....ㅠㅠ 사실 캄보디아에 온지 두달동안 꾸준히, 빈번히 먹기는 했다. 이곳은 길거리 음식의 천국.....길 가다가 하나씩 사먹고...하나는 정없으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세개가 되고...ㅋㅋㅋ 맛있는게 지천에 깔린걸 어떡해ㅠㅠ 어떻게 마다하리오..딱ㅠㅠ 캄보디아까지 와서 체중조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긴 싫지만.....사진에는 보름달이 두둥실 떠있고, 허리벨트의 구멍을 옆으로 훑긴다면.....이건 분명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어찌지ㅋㅋㅋ 지금도 내 손엔.....ㅋㅋㅋ오늘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이다 흑흑키키

원영이의 일기 - 2011년 11월 20일 일요일

오늘 하루는 몸도 편히 마음도 편히 하루종일 집에서 지냈다. 오랜만에 하루를 이렇게 보낸 것 같다. 왜 나는 이곳에서 노심초사 쫓기듯 살았지? 한국에서도 나는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또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일은 또 센터에 가서 내 사랑 이쁜이들을 만나서 양의 기운을 한껏 받고 돌아와야지 ㅎㅎㅎ^^

두달 반도 안남은 이 시점에서 최대한 아쉬움이 덜 하도록 지내고 싶다. 사진도 많이 찍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고싶은 일들 차곡차곡 적어보아야겠다. 주변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너무 섭메이지말고 나를 돌아보아야겠다 한번.

#번외4. 두다리와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덕분에 아파들의 다리에는 알이 빠!!! 누구보다 튼튼한 캠프 아파들^^

시엠립, 어디까지 가봤니?

Part 1. 외곽지역 편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대학생해외봉사단
RaomAtti 시엠리아프, Siem Reap, 캄보디아

- A 라온아피 숙소**
 6번도로 TOP TWON
 ★★★★★ 지주인 김형길
 프랑스풍 양식의 2층 집으로 -
- B 다일 공동체(시엠립 본원)**
 ★★★★★ 리뷰 6개
 프놈프라운에 위치
 밥퍼, 빵퍼 및 교육사업 진행
 원장: 김형길(078-708-080)
- C 앙코르와트**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리뷰 7개
 엄청 큼, 하루만에 못 볼
 EBS 앙코르와트 다크 좀 보내주엄
- D 톤네샵 호수**
 ★★★★★ 리뷰 10개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
 수상가옥들이 있음
 호수에 수영선이 있음
 수영가능, 하엘 특반
- E 바레이 인공호수**
 ★★★★★ 리뷰 5개
 노가다의 결정판!! 엄청 큼,
 연인과 자전거 하이킹코스 추천
 그래서 아파들은 한번 가고 안 감
- F 프싸 르**
 냄새 대박, 코 뚫음 비염환자 추천
 다일공동체 재료 구매하는 곳
 한가할 때 가볼만 함
 외국인이 별로 없는 현지시장
- G 자전거 가게(현지인)**
 ★★★★★ 리뷰 1개
 A급 다수 보유, 100\$이면 벤츠급의
 자전거 구매 가능. 대신 자전거든
 부품이든 도둑맞을 확률도 높아짐
 타이어는 안 훔쳐가서 감사
- H 톤네 메콩**
 시엠립에서 가장 큰 부페.
 바레이호수 - 앙코르와트를
 자전거로 돌고 가면 엄청 맛있음
- I 이름모를 튀김과자 가게**
 감자, 고구마, 바나나 등을 튀긴 과자를 판매
 한봉지에 500원 정도. 중독성 있음.
 살도 금방 찜

측적은 A에서 B까지 약 15KM

기름 이걸 안봤으면 좋겠당
 created by sung rae
 초카에 노가다

To be continued...

#번외5. 11월 사진전



ปังปัง!!! 재밌는 총놀이~ 유치원 아이들과 딱총을 만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만들기 놀이
넥그루 정연도 아이들도 모두 함박웃음^^
(후원: 동아 사이언스메세나)



꼬리잡기 놀이도 하고~



캬앙 몸무게도 잴답냐앙!

천사같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유치원 활동들 ^^



커피한잔의 휴식시간
오늘도 재학빠로는 꾸글꾸글꾸구리였습니다.



캄보디아 하이패션 화보!!!
(배경: 다일센터 앞 슈퍼/모델: 재학, 정연/감독: 원영)



오늘은 밥퍼 빵급식 하는 날!!!
빵 수백개에 신난 아미 스리아들~

건기라 먼자가 너무 날리는 출근길.
넌 누구니? 주주주주주... 민?



+ 우리 주민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민이만 좋아하는 쫓!)

